

아버지 사가랴

Zechariah the Father

누가복음 1:76-8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6월 16일 아버지날 설교

⁷⁶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⁷⁷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⁷⁸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훈을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⁷⁹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⁸⁰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사가랴의 완벽함과 흠

몇 달 전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 살폈습니다. 제목 기억하십니까? 못 믿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마하실 때 그 말씀을 못 믿었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믿고 있었기에 사가랴는 믿지 않았으면서도 믿었던, 믿었으면서도 또 믿지 못했던, 좀 웃긴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세례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였습니다. 이 아들 덕분에 성경에 나왔으니 자식 덕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자식이 아니라도 성경에 실어줄 만큼 아주 분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눅 1:6). 두 사람이 함께 울곧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 했으니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으면 흠이 없다 했겠습니까? 율법의 껍데기를 잘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참 뜻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일에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어색합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 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눅 1:7). 왜 어색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켰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형편을 보니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못 낳는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식이 없었지만 이미 나이가 많아 앞으로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죄를 즐기며 마구 살던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완벽했던 사람이 거기 걸맞은 복을 받지 못했으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믿음도 못 믿은 믿음으로 앞뒤가 안 맞더니 사는 형편마저도 완벽하게 살았으면서 결정적인 아쉬움이 있어 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희망

그래서 우리는 사가랴의 직분에 우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과 이어주던 직분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짐승을 나 대신 잡아 바쳐 죄를 용서받는 제도가 제사 제도였고 그 제도를 책임진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장은 사실 흉내만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지는 못합니다. 짐승을 잡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사형을 당해야지 짐승 한 마리 죽인다고 어떻게 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장은 그저 흉내만 내면서 진짜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참 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직분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제 삶으로 기다렸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도 그게 나에게 참 복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이 엉터리라 그런 건 아니지요. 내가 엉터리입니다. 완벽하게 지켰다 하지만 죄인이 완벽해야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경건하면서도 자녀가 없던 사가랴의 집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 무언가 다른 게 와야 된다, 그걸 보여줍니다. 둘째는 직분으로 기다립니다. 내가 제사도 드리고 향도 올려 드리지만 이걸 그저 몸짓입니다. 기다림일 따름입니다. 진짜가 와야 됩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래서 참 기도를 드릴 수 있

게 해 주실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를 택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할 일꾼 세례요한을 이 기다림의 사람 사가랴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사가랴 기도의 응답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식 없던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경사지요? 지금까지는 남편, 아내였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나 싶을 때 낳았으니 나도 좋고 이웃도 즐겁습니다. 게다가 기도 응답으로 얻은 자식입니다. 자녀를 못 낳아 기도한 사람 많지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해 낳기도 하고 인공수정 같은 과학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몸 아닌 마음으로 낳는 입양의 방법도 있습니다만 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탄생에는 뜻이 더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가진 한계, 죄에 짓눌린 인간들의 한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신호입니다. 오래 전 한나라는 여인도 똑같은 차원의 기도를 드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고는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못 받은 복을 이제야 받나보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문제 하나를 풀어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선구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식 못 낳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온갖 미움, 욕심, 싸움, 죽임, 폭력, 속임, 이런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가랴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은 귀한 기도입니다. 오래 전 한나의 기도도 그랬지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사람, 곧 이스라엘 왕국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레위 지파였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도 레위 지파입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분된 것도 둘이 같습니다. 사가랴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까지 자녀를 안 주신 셈입니다. 그래야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참 제사장을 열린 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거니까요.

믿음의 사람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둘째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선구자를 하나님을 오히려 믿고 의지한 사람의 아들로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런 믿음,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그 구세주를 열린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 종종 하지요. 예수 하루 이틀 믿냐? 이런 사람들은 대개 미지근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뜨겁게 타오르다가 금방 재가 되어 버립니다. 사가랴의 믿음은 날 때부터 믿은 믿음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철저한 믿음이었고 하늘로 솟았다가 땅으로 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온 깊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사가랴에게 주신 사명

자식이 없을 때도 사가랴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가랴의 믿음은 자식을 얻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얻은 다음 더욱 빛이 났습니다. 사가랴가 처음에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직후까지 열 달을 병어리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천사가 전해 준 말씀, 처음에 못 믿었던 그 말씀을 열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복습했는지 그걸 아들 요한에게 잘 가르쳤고 요한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자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말씀은 이제 태어날 아들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될 사가랴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분된 나실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그 사명은 엘리야가 했던 일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일, 곧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 그래서 메시아 앞에 가서 그 분의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제삼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먼 나라 정승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을 것이다, 했다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네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될 거다 하시는 말씀은 미리 알고나 있거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명령입니다.

아이가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갓난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철이 들 때까지 부모가 알아서 키워야지요. 애한테 술이야 안 먹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구분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분되었으니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야 됩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오래 세월 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자세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도 시켜야 됩니다. 튼튼한 몸으로 기르고, 마음의 준비도 단단해 시키고, 성경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조금의 흐트

러짐도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든든히 시켜주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가라를 택하셨습니다.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부부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던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두 사람의 아들로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사가라의 찬송과 예언

열 달 동안 말도 못 하고 있던 사가라가 요한이 세례를 받던 날, 그러니까 태어난 지 여드레 되던 날이지요, 그 날 입이 열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사가라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것과 다릅니다. 사가라는 아직 구약 시대 사람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가라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세례요한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러워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온 식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눅 1:15). 메시아의 선구자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메시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마리아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이 첫째고 남편 사가라와 함께 아들 요한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기를 책임도 맡았습니다. 늙도록 자식도 없이 서글픈 인생을 살았는데 말년에 성령 충만의 복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거 부러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도 세속에 물이 들어 연봉 많이 받는다, 높은 자리 올라갔다 해야 복 받았네 하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주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메시아가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선구자인 아들 요한이 태어났고 메시아도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 가서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가 그 길로 가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가라가 성령 충만한 선지자가 되어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들에 관한 예언

사가라는 아들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는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가 되어 주님 앞에 가서 그 분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겠지요. 그 말씀을 전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라에게 가르쳐 준 그대로입니다.

둘째는 아들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통해 얻는 구원을 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천사가 들려준 말에는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이로써 모든 해가 우리 위로 임하여” 그랬습니다. 전에 천사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거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는데 이 말씀 바로 직전에 해가 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가라가 그 사이 공부 좀 했지요? 그런 다음 그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했는데 이건 이사야 구 장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을 못 하는 열 달 동안 사가라가 뭘 했을까요? 우선은 기도했겠지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식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오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놓고서 정작 옛다 하실 때는 못 믿었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다 된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약속도 알고 메시아가 오실 날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겠다고 천사를 보내 알려 주셨습니다. 온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날이 드디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그 메시아 앞에 가서 그 분의 길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아니, 그렇게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사람을 내 아들로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책임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면 아버지인 내가 아이를 잘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으니까 그냥 뒤도 흘렀한 일꾼이 될 거라 생각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운명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마 하시면서 그 아들이 이런 일꾼이 될 것이다 하셨으면 그건 나에게 아들을 그런 일꾼으로 길러야 한다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부터 연구한 겁니다. 일단 말을 못 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아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키우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책임과 자녀

아버지라는 자리는 참 신비한 자리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지만 몸에 직접 품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독특합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 부모와 자녀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데 이걸 죄가 많이 버려 놓았습니다. 요즘은 기술까지 발달해서 아버지를 보관하는 은행도 있습디다만 아버지의 뜻과 책임은 없이 어떻게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오늘 아버지날에 사가라를 통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사가라가 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사가라는 이천 년 전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특히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건 사가라를 통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께서 나실 때는 아버지 아닌 어머니가 중요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족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의 태, 특히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의 태면 그걸로 됐습니다. 예수께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라셨지만 부모가 아들 예수를 양육하고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을 가르치신 점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선구자 요한이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건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아버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양육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맡은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그랬는지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르는 일은 아버지가 맡았습니다.

난지 여드레밖에 안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아들아, 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네 사명은 주님 앞에 가서 그 분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다. 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구원해 주실 것임을 가르쳐야 된다. 한 번 말하고 말았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는 동안 거듭 가르쳤겠지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이가 혼자 자란 거 아니겠지요.

서른 해쯤 지나 요한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막 1:4). 사람들에게 열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실 것이라고 거듭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아를 직접 보았을 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요 1:29). 하나님이 그런 일꾼으로 부르셨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사가라가 엘리사벳과 함께 아들을 잘 길렀구나,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두 사람에게 요한을 맡기신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도 함께 생각해 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와 책임

사가라의 믿음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사가라는 참으로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거룩한 일을 하는데 나는 자녀가 없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차라리 제사장이 아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제사장 직분을 관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녀가 생기지도 않고 참으로 어색하고 답답한 세월을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요. 나이가 많아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냥 관두자 할 수가 없어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져야 할 믿음의 인내를 사가라에게서 봅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녀가 없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장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안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사가라처럼 늘그막에 자녀를 정말 얻은 가정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 그렇게 기도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매달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도 문제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문제를 가진 나 자신이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맙시다.

아버지 된 자로서 자녀가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제 소유로 생각합니다. 꿈쩍이 아끼는 거야 뭐라 하겠습니까 마는 내 것이라 생각하다 보니 내 생각을 강요하게 되고 내 뜻대로 키우고 싶고 내 욕심을 거기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생깁니다. 그런데 사가라를 보니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실 그 일을 위해 좋은 일꾼으로 준비시키라고 맡기셨습니다.

사가라는 그 일을 잘 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평생을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니 당연하지요. 그걸 아셨으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이거 엄청난 복이요 실로 무거운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

나눔이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잘 키울 경우에만요. 특히 아버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맞게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 있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은혜입니다. 왜요? 불충한 우리를 충성되다 보시고 자녀를 맡기셨으니 은혜지요. 또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맡기셨습니다. 내 아이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못 기르면 혼납니다. 잘 기르면 하나님께 칭찬 받겠지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자

결론은 그럼 뭘니까? 자녀 양육에 테크닉 너무 찾을 필요 없습니다. 공부 물론 해야지요.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녀 양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도 읽고 조언도 듣고 필요하면 상담도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사가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아버지인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진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하도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셔서 잠시 못 믿었지만 이내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는 자세,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사는 것도 앞뒤가 잘 안 맞지요. 열심히 믿는데 사는 건 언제나 어색하지요? 괜찮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사가랴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입니까? 자녀를 둔 남자가 아버지입니다. 오늘 아버지날에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길러야 할지,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참 멋진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아버지들 모두 힘을 내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훌륭한 믿음을 갖춘 멋진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권수경 목사)